

아기 예수를 영접한 복음의 사람들

-성탄주일-

누가복음 2:10-14

정운돈 목사님

* **눅2:10-14**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지, 정, 의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진도자의 사명까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혹시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기도제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강단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이다. 내일도 11시 성탄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6시에는 성탄전야축제를 한다. 우선 서론에서는 약 2천 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나타난 사건들에 대하여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약 2천 년 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 만삭이 되었을 때에 로마 정부의 명령을 따라 고향에 호적을 하기 위해 가던 도중 출산의 기미가 보이자 아이를 출산할 장소를 찾았다. 그러나 장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는 탄생하였고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 이때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그 목동들도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개월 전에 동방의 박사들은 특별한 별의 현상을 발견하였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가 아기 예수가 탄생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한 후 천사가 말한 대로 헤롯에게 탄생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에 분노한 헤롯은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행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머니를 만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탄생한 아기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기한 일이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후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학살명령이 있기 전 천사의 지시에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다. 그리고 헤롯이 사망한 후에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사렛 동네에서 30세 청년시절까지 살게 되었다.

1. 2천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알아보겠다. 성탄절이 되면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한다. 불신자들도 일 년에 한 번 성탄절에는 교회를 온다. 성탄절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표현한다. 저도 아기 예수라고 말했지만 천주교는 예수님을 아기로 표현하고 마리아를 부각시킨다. 예수님의 제사장적 모습을 강조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되신 모습이 강조되지 못하고 왕으로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사탄을 박살내신 왕되신 그리스도도 붙잡아야겠다. 우리는 왕되신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성탄절 행사가 생명을 살리는 영적, 전도의 기회로 되었으면 좋겠다.

(1)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첫 번째 대표적인 인물은 헤롯 대왕이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아기였지만 왕 중의 왕,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마냥 연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이다. 이걸 알 때 흑암이 꺾인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을 역사에서는 ‘대헤롯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 ① 대헤롯 왕은 로마제국의 인정을 받아 유대의 왕이 되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쟁탈전을 한다. 헤롯 대왕은 처음에 안토니우스의 편을 들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긴다. 그때 뛰어난 지혜와 언변으로 옥타비아누스의 선택을 받아 다시 유대인의 왕이 된 인물이다. 헤롯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끌려갔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는 안토니우스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였습니까. 이제 저를 받아주신다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위하여 충성과 목숨을 다 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살려줄 뿐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줬다.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의 헤롯 왕의 자녀 분봉 왕들은 힘이 없었지만 헤롯 대왕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어렵게 인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겨 왕이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있냐고 물으니 깜짝 놀랐다. 그 왕을 죽이려고 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다. ② 헤롯은 유대인의 먼 친척만족인 에돔 족속출신이었다. 에돔 족속의 선조인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형제였다. 헤롯은 약간 열등감도 있었을 것이다.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나의 유익이면 안 된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와야 한다. 예수님을 잘 알아서 어떻게 전하고 증거할까? 하기 위해 교회를 와야 한다. 다 필요하지만 교회를 치유를 받기 위해, 문제해결을 받기 위해, 위로를 받기 위해 오면 안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기 위해서 모였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치유받기 위해 오지 않았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빠져나오는 길이 진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공하고 응답받고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알고 증거하는 것이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복잡한 영적 공식이 들어있다. 성경을 알아가면서 답이 무엇인지 찾아가 수 있다. 정확한 성경을 알아야 정확한 답을 알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헤롯을 보면서 영적 공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대단한 건축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아야 한다.

(2)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종교와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사기꾼들이었다. 요새는 깡패도 교회를 한다. 깡패출신 목사님들도 많다. 감옥에서 은혜를 받아서 목회한다고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다. 또한 성경과 복음보다는 자신들의 기준, 전통, 관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종교인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이러한 종교인들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교회도 살릴 수 없다. 오히려 망가뜨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교회나 복음이나 진도현장 가운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성경을 읽기도 한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한 사람들이다. 잘못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셨다.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데 어떤

교인이 매 주 주석책을 보면서 목사님이 주석적으로 틀린 걸 구역예배 때마다 말한다고 한다. 목사님의 예화나 통계가 틀릴 수도 있다. 성경구절도 틀릴 수 있다. 중요한 건 본질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었고,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다. 강단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유 있는 순종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다. 맞는 것 같으면서 팽창해 틀린 것이다. 어떤 분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목사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목숨 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오래 참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다. 나의 모습이 교회를 살리고 선교에 도움이 되는 모습인지 잘 보아야 한다.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자고 했다. 가짜 어머니는 이에 그렇게 하자고 했고 그렇게 친엄마를 찾아냈다. 옳은 말로 교회를 망치고 교회에 피해를 준다면 그건 틀린 말을 하는 것보다 나쁘다. 무엇인가 나의 동기가 들어있는 것이다. 중심 각도를 오직 복음과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맞추시기 바란다.

(3) 세 번째로 여관집 주인들처럼 성탄절에 장사만하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 성탄절 날 직장을 때려 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굳이 고집을 부려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음에도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이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르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나님은 피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 한다. 여관집을 생각해 보자. 방이 없더라도 아기를 출산하는데 자기 방을 빼서 줄 수도 있다. 그런 배려도 없었다.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준은 돈과 나의 이익이기 때문이다. 잘 안되지만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여관 주인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탄절 행사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 수 없다. 반대로 여러분의 헌신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결국 이들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였다. 단순한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메시아이고, 창조주이고, 영원복락과 길, 진리, 생명이 되는 분이요. 그 축복을 놓쳤다.

2.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다.

(1) 첫째로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꾼 사람들이었다. 연애와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사람들이다. 교회에 피해를 주는 연애와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내가 가던 교회의 청년부가 3백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아무도 안 모이게 되었다. 알고 보니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가 삼각관계였다고 한다. 조심해야 한다. 나의 행동이 교회와 전도와 복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보면 내 행동이 달라진다. 요셉은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가만히 꿇고 자 했다. 아마 너무나 황당하고 의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가정과 돈, 연애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을 먼저 세우면 나머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최우선순위가 그리스도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

(2)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다. 그들은 참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정말 참된 지식을 탐구한다면 하나님께로 맞닿게 되어 있다. 진리를 깨달으면 복음과 닿는다. 그게 참 진리를 추구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내가 양자역학이 이해가 안 되어서 양자 컴퓨터가 왜 필요한지 장로님께 물어봤다. 장로님께서 인간의 DNA정보가 많아서 더욱 빠른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DNA가 이렇게 복잡하다. 우연히 만들어진 건 없다. 사람들은 다 궁금한 점들에서 그냥 멈춰있기 때문에 진리에 닿지 못한다. 평계만 댈 뿐이다. 누가 축복을 받고 진리를 얻고 아기 예수를 만날까? 동방박사처럼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다.

(3) 세 번째로 목동들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진리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4) 다음은 전도자 시므온이다. 시므온은 참된 복음의 길만 걸어가는 목회자였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였다. 그리고 오직 성령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절대제자라고 할 수 있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읽겠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

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느니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의심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시므온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

(5) 다음으로 안나 할머니도 아기 예수를 영접하였다. 당시 안나의 나이는 결혼한 지 7년에 과부로 84년을 지냈다고 했으니 18살에 결혼했다고 해도 109세이고, 19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110세다.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킨 권사님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항상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나서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 안나와 같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며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참으로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이분은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겠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를 선지자라고 표현했다. 그냥 할머니 권사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선지자다.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중직자들 모두 교회를 살리고 아기 예수의 증인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란다. 여러분들 모두 아기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줄 믿는다.

“기쁘다 구주오셨네”라고 노래하는데 그렇다면 성탄절이 진정으로 기쁜 날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성탄절 3~4개월 전부터 준비하더라.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나 보니까 그들은 트리를 화려하게 만들수록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도 이렇게 올인하고 문화를 바꾸는데,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했다. 왜 성탄절이 기쁠까? 먼저 기쁜 이유를 알아야겠다.

(1)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 이유 없이 기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기쁘다면 언젠가 꺼지게 된다.

(2) 두 번째는 인간들이 가진 12가지 문제에서 해방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무속, 저술, 우상과 모든 운명, 사주, 팔자의 울무, 틀, 함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사탄의 운명,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주인이 되어야 누릴 수 있다.

(3)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날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는 수백 번 이상 사탄의 일을 멸할실 여자의 후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다른 많은 약속의 말씀들도 성취될 것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매주 전하는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어서 강단의 성취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저녁마다 포럼하고 말씀을 정리할 걸 모아라. 강단이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정리하라. 그걸 포럼하는 게 지교회다. 많은 분들이 강단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참사랑교회가 모델이 되어야겠다.

(4)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이다. 개인, 가정, 국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성탄절에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기쁨을 237나라에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 이브를 맞아 성탄을 준비하면서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세상의 모든 흑암을 쫓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